

쌀과 도자기, 풍요로운 여주(驪州)

강 우

자유기고가

여주(驪州)는 잔잔히 흐르는 여강의 은빛물결과 함께 문화유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고장이다. 여주를 말할 때 남한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바로 남한강 뱃길의 중간 지역에 있는 여주는 한때 번성을 했으며 술한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 사람들이 여강이라 부르는 남한강은 충주시에서부터 시작해 서울에 이르는 뱃길로서 예전에는 ‘나라의 길’로 불릴 만큼 중요했다. 신작로나 철도가 뚫리기 전까지는 경상도나 충청도나 강원도와 같은 곳에서 나는 갖가지 산물들과 사람들이 한강의 뱃길을 타고 와서 서울 땅에 닿았다. 그때에는 지금의 고속도로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실을 했음직하다. 그런데 그 뱃길이 1974년 팔당댐이 생김으로써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남한강 뱃길의 정서와 함께 살아온 여주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노릇이라 하겠다.

고려 말기의 대학자였던 이색은 이곳을 “들이 편편하고 산이 멀다.”고 그의 시에서 읊었다. 여주군 전체 면적의 54%가 임야이니 산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를테면 여주읍에서 북쪽으로 보면 우뚝 솟은 양평군의 용문산과 같은 높은 산이 없다. 여주군의 지세는 남한강 언저리에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와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산은 야트막하고 그나마 대부분 군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여주에는 기원전 십 세기쯤부터 청동기 문화를 지닌 농경부족이 농사를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점동면 혼암리에 있는 선사시대의 집터에서 발견된 탄화된 벼를 보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요충지였다가 광개토왕 때 잠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후 다시 백제에 속했다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475

년 고구려의 영토가 되면서 골내근현이라 불리웠다. 그 후 한강 언저리에서 땅 싸움이 벌어지면 이곳은 이긴 쪽의 땅이 되었는데, 황호, 황려, 영의, 여강, 여흥, 여성, 여주 등으로 여러 차례 땅이름이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이곳의 역사가 여강의 흐름처럼 잔잔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이곳이 역사적으로 중요시 된 것은 꼭 군사적인 이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내륙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곡창지대였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의 학자 서거정은 여주를 가리켜 “강의 좌우로 펼쳐진 숲과 기름진 땅이 멀리 몇백리에 가득하여 벼와 기장과 수수가 잘되고, 나무하고 풀 배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데에 적당하여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택리지’에서도 대동강 언저리의 평양과 소양강 언저리의 춘천과 함께 나라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촌으로 꼽았다.

여주는 기름진 땅과 물이 늘 넉넉하여 벼농사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천군과 더불어 자체쌀의 산지로 이름이 났다.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벼알이 여무는 8~9월의 날씨가 최고의 적온으로 밥맛을 저해하는 아밀로스가 다른 쌀에 비하여 적게 함유되었다. 그래서 최고의 밥맛을 인정받아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려졌다.

예나 지금이나 여주군은 농업이 주된 생활 기반이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농업에만 매달린 것은 이 지역이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탓도 있지만 농사 말고는 달리 벌이가 될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팔당댐의 상류지역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도원인 이곳에는 강을 더럽힐 만한 공장이 일체 들어설 수 없었고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여주는 맑고 푸른 남한강과 문화유적들을 관광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여주팔경’이니 ‘금사팔경’이니 하는 말은 옛날부터 이름났던 이곳의 빼어난 경치 여덟 군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색이나 정몽주나 이곳에서 태어난 이규보와 같은 선비들의 시귀에서 ‘여주팔경’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어 더러 없어지거나 변해버린 것도 있지만 ‘동국여지승람’은 이곳의 팔경으로 여강 언저리에 내려앉는 기러기, 청심루에서 바라본 달, 연춘 포구로 돌아오는 뚝단배, 학동의 저녁 연기, 신록사의 종소리, 아담 아래에 떠있는 고깃배의 등불, 영릉의 신록, 팔대수의 우거진 숲을 꼽았다. 그중 청심루에 올라서면 여주 팔경을 다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여주 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이 누각은 해방이 되자마자 일어난 폭동 때 불에 타서 없어졌다.

영릉과 신록사는 여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이다.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영릉(英陵)은 성군(聖君)으로 추앙 받는 세종대왕과 왕비 소현왕후의 합장 능으로 본래 광주군 대모산에 있던 것을 예종 때에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영릉은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능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합장릉이기 때문에 혼유석이 두좌가 있으며 동자주에 12간지를 운자로 새겨 놓았고 장명등은 8각으로 되어있다. 조선 제17대 효종대왕의 능릉(寧陵)은 영릉에서 1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신록사(神勒寺)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강을 두고 위치해 있다. 이 절 안에는 고려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벽돌탑이 있기 때문에 흔히 벽절이라고 불린다. 남한강이 바로 앞을 지나 흘러서 옛날부터 경치가 이름났던 이 절은 모두 이백간이 넘었는데 임진왜란 때 다 타버렸다. 오직 단 하나 남아 있는 건물은 대들보가 없는 집인 조사당(祖師堂)으로 보물 제 180호로 지정되어 있다. 잣더미가 되다시피 한 신록사는 이조 숙종 때에 복원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의 모습을 되찾았다.

북내면 상교리에는 신라 때(764년)에 지은 고달사(高達寺)라는 절터가 있다. 이 절은 언제 어떻게 폐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쓰러지고 그 터에는 부도와 같은 돌 조각품만 쓸쓸히 남아 있다. 창건 당시의 사역은 실로 광대하여 지금의 상교리 일대가 전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보 제4호인 고달사지부도는 8각 원당형 부도 가운데 손꼽히는 작품으로 상륜부만 없을 뿐 각 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부도는 화려하면서도 장중하고 정교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여주에는 명성황후(明成皇后) 민비의 생가, 파사성지, 서희 장군묘, 이완 대장묘, 목야 불교박물관, 여주 잠사 민속박물관, 석봉 도자기미술관 등 유적과 기념관이 산재해 있다.

여주는 도자기의 고장으로 이곳에서 나는 점토는 응집력이 강하고 빗깔이 윤택하여 고려시대부터 자기원료의 주산지로 이름이 났고 조선조에는 백자의 근원지가 되었다. 현재 600여개의 도자기 업체가 청자, 백자, 분청, 와태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만들며 매년 5월에는 ‘도자기 박람회’가 열린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드물게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여주는 쌀, 도자기와 함께 땅콩, 참외, 고구마, 표고버섯, 배 등이 특산물로 꼽힌다. 금사면 금싸라기 참외는 남한강변의 퇴적토인 사질토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당도의 맛이 뛰어나 전국에서 생산되는 참외 중 특상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